

- 본문 말씀 | 창세기 12장 1-5절
- 결단 찬양 | “때로는 너의 앞에”

지난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았나요? 앞으로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해(死海)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바다예요. 한자의 뜻을 그대로 읽으면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요. ‘사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르단 강으로부터 유황과 질산 성분을 함유한 수백만 톤의 물이 날마다 이곳으로 흘러들어 온다고 해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해에서는 수분이 증발되기만 하고 그 가운데 함유된 염분 등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사해 바다의 염도는 일반 바다의 5배 정도 되는 약 34.2%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바다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다시 흘러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1

절 취 선

우리 주변에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썩어버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다가 적조나 녹조 현상만을 일으키고 썩어버린 호수의 모습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해와 같은 바다, 고인 물이나 호수처럼 자기 안에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 보내지 못한, 곧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 보내야 하는 것에는 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예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흘러 보내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흘러 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해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 12:1).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2

아브람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아브람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람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1절 본문의 후반절을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브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떠나는 사람이 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도 정해주시지 않은 채로 그저 '가라'고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아브람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덜 되셨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예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람이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에서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뜻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람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셋째,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받은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된 아브람에게 복에 대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세요. 오늘 본문의 3절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람에게, 이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아브람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복을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아브람을 통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잖아요.

‘복’하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건강하고 외모도 탁월해지는 것을 떠올려요.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도록 유명해지면 좋겠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그런 요소로만 채워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또 물질의 풍요가 생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아브람을 만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람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진정 가치 있는 복을 약속하신 거죠.

이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린 그 복을 세상에 잘 흘려가게 해야 해요. 통로의 사명은 흘러 보내는 거예요. 논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넓은 논이 있어도 그 곳에 통로를 통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벼가 자랄 수 없어요. 가뭄으로 갈라진 논을 본 적 있나요? 바닥이 짝짝 갈라져 있어요. 계속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끝내 버려지는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통로가 물을 흘려 보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물이 썩게 되죠. 처음에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는데 물을 흘려 보내지 않게 되면 고여서 썩고, 결국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그 썩은 물이 통로를 부식시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 시작에 죽은 바다,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바다가 사해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즉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복의 통로로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 곧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친구들,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을 주변에 흘려 보내야만 해요.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 곳에 위로와 소망, 사랑이 넘치게 돼요. 이것은 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을 주변에 흘려 보낼 때만 생겨나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서 복을 마음껏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이 복,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마음껏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게 될 친구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남겨보는 건 어때요? 개학과 입학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담긴 말씀을 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도록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복의 통로로 전한 메시지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